

“ 나 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가 있다면? ”

■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자기 홀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좋지 않다. 심지어 아내를 독점하겠다는 이마저도 현대적이지 못한 이기주의자라는 비웃음을 당하는 터에 기업을 독점하려는 재벌이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흔들겠다는 독재자는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런 독점의식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에도 큰 독소가 되고 있다. 어느 목사님이나 성도가 이 교회는 내가 피땀 흘려 세웠고 가꿔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사랑 운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침범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이들을 경쟁 대상 또는 적군으로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몰아내려는 정신 빠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뒷세 정도가 아니고 교회 독점욕이 발동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의 아성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자칭 애국자들 즉 여당, 야당, 군인들, 공무원, 기업인, 운동권 학생 등 모두가 자기들만 진정한 애국자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나라가 누구를 참애인으로 맞아야 할지 난감한 형편이다. 그러나 다른 독점과 같이 애국의 독점이나 교회 사랑의 독점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기만 나라와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요 신자라면 다른 애국자나 신자 모두 가짜라는 말이고 자기 방식대로 나라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고 하나님 사랑이라 하니 이 또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기셨다고 자기 혼자라고 불평하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들 자칭 애국자나 언필칭 하나님 또는 교회 사랑을 자기만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나라에도 하나님께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짓 확신 속에 살고 있는 가증한 자라 할 것이다. 애국 독점자나 교회사랑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들의 정신구조를 분석해 볼 필요도 없이 이들의 나라사랑이나 교회사랑은 결국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이상을 사랑하며 나라나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로 일하신 분들이 선임자나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공식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나라 사랑하여 장관으로 일을 했는지 묻고 싶었다. 국가 이익보다 자기 치부나 치적을 세우려 했다면 그는 참애국자가 아니듯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자일 것이고 자기 소욕이나 채우려고 충성 봉사했다면 아무리 큰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국을 독점하려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속아넘어갈 줄 알고 있지만 권력을 독점하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처럼 사람들 눈에 쉽게 발견된다. 하물며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모르실 리 없겠거늘 누가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속임수로 눈가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운 일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서양 사람들은 매일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받아야 부부간에 안심한다 하지만 한국의 애처가는 조용히 남편의 본분을 성실히 함으로 아내 사랑을 나타낸다. 그런데 애국이나 하나님 사랑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나라와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애국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아내에게 대하듯 좀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깊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때가 되었다. 나라 사랑은 더 많은 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해야 하듯 교회사랑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애국독점, 교회사랑은 나 홀로만이라는 환상을 먼저 버리는 것이 참사랑의 시작이다.

-한국장로신문 [1366호] 2013년 5월 11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Sally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10:1-21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Jesus is the Good Shepherd" Pastor
* Hymn	56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p> <p>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p> <p>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서울교회 QR코드</p>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p> <p>교육목사 윤누가</p> <p>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p> <p>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p> <p>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진홍성일(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다),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홍쿠아 망 탕 켈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쟁 찬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레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키벨 미얀마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박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루쁘도, 보디소프, 린쯔 수란준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p>		



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박 노 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

■ 빌 2:5

서울교회는 지금 26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의 이 아픔은 서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서울교회를 알고 있고, 서울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에서 감당할 중요한 역할들에 대해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로, 바울에게는 매우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교회는 어그러지고 거르스는 세대, 믿음이 없고 쾌역한 세상 가운데 존재하였습니다(빌 2:15). 그런데 어려움은 교회 밖에만 있지 않았습디다(빌 1:28, 3:18)).

1.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담명료하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빌 2:2-4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남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정말로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2.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공화와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일 3:16).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최후 심판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그리스도의 날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최후 심판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최후 심판날을 바라보라고 하며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맺는 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6년 전에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의 풍성과 은혜와 위로가 서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의창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이강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준권 목사	최광성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이계홍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합 3:17-1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7(시 29)...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452(50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수 24:14-15, 인 도 자	행 27:24-25...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I have faith in God)	이광순 목사
* 찬 송 Hymn488(53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일	
III 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지난주 성구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사 55:6-7	인 도 자
찬 송 20(41)	다 함 께
기 도	김영희 집사
성 경 계7: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의 인(印)-구원의 확실성" ...	설 교 자
* 찬 송 521(253)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송마라 권사
성 경 벧전 5:7-1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영원한 영광”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 비전2020 기도회 / 3일(주) 오후3시30분 802호
- 9월 스테판 윌례회 / 3일(주) 오후3시30분 101호
- 전교인 1일 수련회 진행자 모임 / 3일(주) 오후3시30분 202호
- 정기당회 / 6일(수) 수요일예배 후 가이오실
- 다락방 리더 훈련 개강 / 6일(수) 수요일예배 후 101호
- 아브라함선교회, 사라전도회, 샬롬권사회, 은빛찬양대, 소망부 연합모임 / 9일(토) 오전11시 베델하우스
- 10교구 연합 다락방 / 9일(토) 오후6시 대사골(428-1500)

◆ 알 림

-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주일 오후 1시-2시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정현구(치과), 김봉배(통증의학)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1. 이광순 목사 소개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B.A 미국 Southeastern Bible College BA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MCE, M.M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Div., Ph.D. 장신대 선교신학교수, 세계선교연구원장 한국선교신학회 회장 한국연합선교회 회장 영락교회 장로, 협동목사, 장신대 환경직목사 석좌교수 주안대학원대학교 총장
장 레 1.故 박순옥 권사(8교구 김광옥 집사의 모친 서영희 권사의 시모) (4교구 김광민 집사의 모친, 박민숙 집사의 시모) / 8월29일(화) 별세, 9월1일(금) 천국환송예배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921명	272명	270명	1,463명	18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8/2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 27일	헌금	41,961,600	
"	특별예배비		1,000,000
"	말씀봉사비		21,540,000
"	성 례 비		7,980
"	찬양대사례비		12,650,000
"	찬양운영비		3,000,000
"	교회학교운영비		1,900,000
"	선 교 비		1,315,920
	경 조 비		69,000
"	급 여		39,624,000
	출 판 비		270,000
"	사무용품비		1,600
	소모품비		135,900
	통 신 비		687,890
	차량유지비		1,036,780
	복리후생비		130,320
	수도광열비		200,200
	수선유지비		400,000
	식당운영비		1,144,000
"	합 계	41,961,600	85,113,590